

# 대학신문 이용과 만족도 평가: 제대신문을 중심으로\*

김진영\*\* · 황석규\*\*\* · 정용복\*\*\*\*

## 목 차

- I. 머리말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함의

## I. 머리말

신문·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사회나 사회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매체 비평가들은 매스미디어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매스미디어의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에 대해 염려하거나 비판하고 있다(김영호·강준만, 1995). 이러한 관심은 매스

\* 이 논문은 <제주대학교 대학신문 평가조사연구> 보고서(김진영 외, 2003, 11)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보고서는 당시 '제대신문'에 대한 독자평가조사와 더불어 제대신문이 독자들에게 읽히는 신문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평가내용과 제안에 따라 2004년에는 제대신문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하였다(김진영, 2004). 우선 제호를 '濟大新聞'에서 '제주대신문'으로 바꿨다. 또 보도면과 독자 오피니언, 기획기사를 확대하고, '나는 달린다-제대인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문 및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학생들에게 역할 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를 지면에 반영했다. 아울러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신문편집 디자인 개선팀'을 운영해 디자인과 편집, 레이아웃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제주대신문'을 구축하고 배부체제도 개선하였다.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전의 제대신문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현 제주대신문의 실상과 시간적, 현실적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 조교

미디어의 위력이 실제로 대단한 것이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나 개인들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는 대학신문도 마찬가지다. 대학신문은 대학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내의 신문이라 하더라도 다중을 상대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은 기성매체 못지않게 중요하다(윤영무, 1988). 특히 대학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학 내외를 향한 대학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주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신문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과거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도, 미래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념성에 치우친 나머지 대학문제, 즉 우리들의 얘기에 너무 소홀했고, 최근에는 학생기자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 부족으로 인해 기사와 질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정용복, 2003). 그 결과 독자들의 무관심과 외면은 점점 커져 배포 후 며칠이 지나도록 캠퍼스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는 대학신문의 현실을 야기하였다(윤희중, 1993). 대학의 신문이 '독자 없는 인쇄매체'가 돼버렸다는 평가에 대해서 대학언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범수, 1995). 더 나아가 대학신문 기자직에 대한 지원율도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독자들 뿐만 아니라 제작에 참여하는 학생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한국언론연구원, 1995). 이것이 바로 대학신문이 당면한 문제이다. 신문을 발행하되 소구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더욱이 그들을 만족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학신문은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본연의 활동을 통하여 대학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독자들의 성격과 신문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신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수용자들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때 독자들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대신문'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신문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내리는 신문평가와 그들의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대신문'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체대신문'에 대한 열독실태와 만족수준을 평가하고, 만족·불만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자들이 대학신문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대는 무엇이며, 실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 이용과 충족 연구를 이론적 틀로 삼아 대학구성원들을 적극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의 욕구, 기대, 동기 등의 관점에서 대학신문의 이용동기를 파악하려고 한다. 조사의

결과는 대학신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신문의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암시해 줄 수 있다.

## II. 이론적 논의

### 1. 대학신문의 정의와 기능

대학신문은 그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학부와 대학의 학생들, 교수, 학교당국 및 직원, 그리고 대학과 관련 있는 학부모, 동문 등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기관지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윤희중, 1985). 다시 말해 대학신문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사회단위를 존립근거로 하여 대학성원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언론형태이다. 대학신문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사실 탐구와 전달 기능에 충실하되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 및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최창섭, 1990).

대학신문과 대학신문의 기능을 이렇게 정의할 때 대학신문은 일반 신문의 경우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특유의 목표와 기능을 갖고 있다(차배근, 1993). 이를 세분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적 기능(operational function)으로서 학내 뉴스를 보도하고, 학내 여론을 환기하고 제도하는 역할을 말한다. 더 나아가 대학과 공유해야 할 지역사회의 뉴스를 보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하고 올바른 비판과 아울러 민주적 운영에 대한 방향 제시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학언론이 가지는 환경 감시의 기능과 비판 기능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학신문의 이러한 기능은 대학환경을 감시하고, 독자를 대학의 성원으로만 국한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으로 그 범주를 확대해야 하며, 독자도 대학의 구성원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상정하고 신문 제작에 임해야 한다.<sup>1)</sup>

둘째, 대학신문은 홍보적 기능(public relations function)을 갖고 있다. 대학신문은 대

1) 대학신문도 이제는 마련된 재원, 확보된 고정 독자, 한정된 기사에서 탈피하여 지역과의 연계성을 맺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문으로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지역일간지들이 상업성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지역문화와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 분석하는 지역신문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학 학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해 대학을 홍보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학신문의 홍보적 역할은 더욱 비중 있게 자리할 것이다. 특히 신입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대학신문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 역량, 시설, 제도, 교육 이념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성원들이 그 대학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소구층인 지역주민들의 정보생활에 대한 변화 추이를 잘 읽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들의 고급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적 기능(educational function)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신문사 자체가 대학의 부속 기구이고 대학신문의 제작 주체가 학생인 만큼 대학신문사 내부에서의 학생기자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이다. 학생기자들에 대한 저널리스트로서의 기술을 교육하고, 지방 언론사와 연계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야 한다. 현재 제주 지역에도 많은 언론 기관들이 있다. 이제 이러한 지방 언론사들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중앙 중심의 언론에서 탈피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지방언론 매체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언론의 환경 변화는 대학신문 기자 출신들의 취업 기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학의 일차적인 기능은 학문연구와 지식의 전수, 즉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의 연구환경과 조건이 구성원들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실험적 기능(experimental function)을 갖고 있다. 대학신문은 일반 신문과 달리 고급 신문이며, 엘리트 신문이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학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 기능이 강조되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신문의 역할에서 실험정신이 강조되는 것은 상업성을 철저히 배격하는 신문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신문은 대학의 문화활동의 전달이 아니라, 어떠한 문화활동도 실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아울러 실험적인 문화를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대학신문은 상업신문의 편집 방식의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학신문 고유의 창의성 있는 편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대학신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대학 특성에 맞는 개성과 다양성을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역사의 기록 기능(documentation function)을 갖고 있다. 대학신문은 그 대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대학신문의 '정확한 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역

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영역에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 2. 대학신문의 이용과 충족 접근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의 매스미디어로서 대학신문이 그 수용자인 대학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인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신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대학신문이 대학 내의 매스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당초 수용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매스 미디어의 내용이 마치 탄환이 몸에 박히듯 수용자에게 적중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마법의 탄환이론(Magic Bullet Theory) 또는 피하주사 이론(Hypodermic Theory)은 한 마디로 대중매체가 모든 수용자에게 강력하고 보편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이론이다(Severin & Tankard, 1988).

이러한 초기의 효과론은 수용자의 외적 자극 요인, 즉 언론기관, 메시지, 매체와 커뮤니케이션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유효하지만, 수용자의 내적 요인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약점을 찾을 수 있다(McQuail, 1987). 이러한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고안된 이론이 바로 이용과 충족 이론(Use and Gratifications Theory)이다. 이용과 충족이론은 매체를 이용하는 수용자 입장에서 그들이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충족하고자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매체 이용 동기를 규명하는 접근 방법으로(Rosengren, 1974), 기존 매체를 대상으로 하여 오랜 연구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1970년대에 당시로서는 주류였던 수동적인 수용자를 상정한 기존의 연구 흐름에 강력한 도전으로 대두되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기본 전제로 수용자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한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수용자의 선택은 커뮤니케이션 도입 여부에서부터 콘텐츠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그들이 미디어로부터 얻는 만족의 정도가 이용에 다시 영향을 준다. 이용과 충족 이론의 의미는 이용자들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특정 미디어의 발전 여부와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박성희, 2004).

이와 같은 이용과 충족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여러 매체의 수용자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Rosengren, 1974). 라디오 청취자를 연구한 멘델슨(Mendelson)은 라디오 청취에 따른 충족 유형으로 유대감 형성, 시간 보내기와 지식습득 유형 등을 제시하였다. 신문 이용동기에 관한 베렐슨(Berelson)의 연구는 정보욕구, 사회적 권위, 사회적 접촉, 휴식

등과 같은 이용동기를 발견하였다. 루빈(Rubin)은 텔레비전 충족 연구에서 사람들이 휴식, 습관, 오락, 정보, 회피 등의 시청동기 유형을 형성하고 있음을 조사하였다(Pradeep, Korgaonkar & Wolin, 1999). 이용과 충족 연구는 수용자를 능동적이며 수용자의 욕구와 동기가 매체를 선택하고 이용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주로 수용자의 매체 이용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권혁남, 1991).

### 3. 대학환경 변화와 대학신문

대학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학 내적으로는 교육의 질과 수월성 확보, 기초학문의 위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학 외적으로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198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1952년 초급대학으로 출발하여 2003년 10월 현재 9개 단과대학, 8개 학부(17개 전공), 52개 학과(13개 학과군), 총 정원 10,850명, 6개 대학원 체제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지원기관과 연구기관, 대학본부와 각 대학 행정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로서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학 내부의 급속한 규모 확장과 더불어 대학신문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제대신문은 1954년 5월 27일 '濟大學報' 창간호를 발행한 후, 1959년 4월 '濟大新聞'으로 제호(題號)를 변경하여 제대신문 제1호를 선보였다. 1961년 3월에는 '濟大新聞'을 '濟大新報'로 다시 제호를 바꾸었다. 1970년 4월 제91호를 발행하면서 제자(題字)를 한문(濟大新報)에서 한글(제대신보)로 전환하면서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 편집으로,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전용 편집체제로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제104호부터는 제자를 한문(濟大新報)으로 환원시키면서 국한문 혼용체제로 발행됐다. 1973년 3월 제115호부터는 다시 세로쓰기 편집을 하다가 1984년 2월 제241호부터는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혼용하여 사용했다.

1982년 3월 1일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제대신보는 격주간 발행을 시작했다. 1986년 2월에는 '濟大新報'를 '濟大新聞'으로 다시 제호를 변경시켰다. 제대신문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편집도 가로, 세로쓰기의 혼합 체제에서 전면 가로쓰기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0년 3월부터는 격주간 발행에서 주간 발행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1994년 8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발행한 제대신문은 8면의 지면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그리고 1996년 8월 제555호부터는 전자화상 편집기(CTS)가 도입되어 자체 편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제대신문은 매회 8면~12면의 지면을 주간으로 발행하

고 있으며 전면 가로편집과 겹면 컬러 인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그 대학과 대학신문의 발전은 한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매체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대학신문의 취재, 제작, 배포와 관련 제작과정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크게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체환경의 변화는 대학신문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독자들의 대학신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대학신문이 안고 있는 취약성 등에 대한 원인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범수, 1995).

이처럼 급변하는 매체환경에 대학신문이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구성원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신문내용이 구성되고, 소재와 기사의 다양화, 전문화 그리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매체의 구축 등 다각적 모색 등을 통해 대학신문은 그 위기에 대응해야 할 단계를 맞고 있는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내용

본 연구는 제대신문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은 대학신문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또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대학구성원들이 제대신문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읽고 있는지, 즉 열독(閱讀)의 문제를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제대신문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응하여 자신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구성원들의 통합을 증대시키고 정체성 형성과 자긍심 고취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도 살폈다. 마지막으로 제대신문 편집방향이 대학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도와 만족감을 가져다주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구성과 편집의 적절성,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기사작성과 선정의 전문성, 오·탈자 등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었다.

#### 2. 조사의 대상과 방법

표본으로 학생, 직원, 교수를 합한 728명을 추출하였다. 학생의 소속계열과 학년, 교수와

직원의 구분들을 고려하여 다단계집락표집방법(Multi-stage Cluster Sampling Methods)으로 표본수를 조정하였다. 추출된 표본수는 학부생 630명(인문사회계열 315명, 자연과학계열 315명), 교수 63명, 직원 35명 등 총 728명이었다.

〈표 1〉 분석 대상자의 구성

구분	빈도	퍼센트(%)
대학생 1학년	102	17.5
2학년	135	23.1
3학년	159	27.3
4학년	112	19.2
직원	32	5.5
교수	43	7.4
계	583	100.0
남자	331	56.8
여자	252	43.2
계	583	100.0
인문대학	93	16.0
법정대학	82	14.1
경상대학	104	17.8
사범대학	20	3.4
농업생명과학대학	41	7.0
해양대학	45	7.7
자연대학	84	14.4
공과대학	69	11.8
의과대학	24	4.1
대학본부	12	2.1
단과대 행정부서	9	1.6
계	583	100.0
10~19세	9	1.6
20~24세	368	63.1
25~29세	126	21.6
30~39세	22	3.8
40~49세	38	6.5
50세 이상	20	3.4
계	583	100.0

조사는 2003년 5월 15일부터 동년 6월 5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원들은 사전에 본 조

사의 목적과 설문조사 지침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학생 표본의 경우 해당 학과 조교의 도움을 받아 조사원이 설문지를 배부하면 피면접자가 응답을 기재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유형은 주로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최종 분석에 활용된 질문지는 총 583부였다. 자기기입 후 제출하도록 하였던 만큼 미제출자와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583부에 근거하여 분석대상을 구성하면 <표 1>과 같다.

## IV. 분석결과

평가 분석은 앞서 지적했듯이 열독 실태, 제대신문의 기능·역할 수행 정도와 편집구성의 만족도에 대해 이루어졌다.

### 1. 열독 실태 평가

신문제작 관련자들에게 있어 열독 문제는 매우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과제이다. 읽히지 않는 신문은 단순한 인쇄물에 불과할 뿐이며, 허망한 곳에 정신적·물적 자원을 투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독률을 제고시키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열독률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다. 신문의 이미지, 신문의 역할과 기능, 기사의 질과 유용성, 편집 능력과 인쇄상태 등이 독자의 눈과 마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열독을 결정짓는데 작용한다.

#### 1) 열독 정도

<표 2>는 제대신문의 열독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 583명 중 46.8%에 해당하는 273명이 '거의 읽지 않는다'에 응답하고 있다. 여기에 '전혀 읽지 않는다'에 응답한 수도 187명으로 32.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응답자의 78.9%가 제대신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제대신문을 어느 정도 읽는 경우는 21.1%에 불과하다. 특히 '나올 때마다 읽는다'에 응답한 열독자는 단지 5.7%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제대신문의 열독 정도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제대신문을 '나올 때마다 읽는다'고 대답한 구성원은

〈표 2〉 신문의 열독 정도

구분	빈도	%	누적 %
나올 때마다 읽는다	33	5.7	5.7
대체로 많이 읽는 편이다	90	15.4	21.1
거의 읽지 않는 편이다	273	46.8	67.9
전혀 읽지 않는다	187	32.1	100.0
합계	583	100.0	

〈표 3〉 소속과 신문 열독 정도

(단위: %, 명)

구분		열독 정도				합계
		나올 때마다 읽는다	대체로 많이 읽는 편이다	거의 읽지 않는 편이다	전혀 읽지 않는다	
학생	1학년	1.0(1)	6.9(7)	24.5(25)	67.6(69)	100.0(102)
	2학년	0.7(1)	7.4(10)	57.8(78)	34.1(46)	100.0(135)
	3학년	6.9(11)	10.7(17)	52.8(84)	29.6(47)	100.0(159)
	4학년	3.6(4)	15.2(17)	60.7(68)	20.5(23)	100.0(112)
	소계	3.3(17)	10.0(51)	50.2(255)	36.5(185)	100.0(508)
	교직원	21.9(7)	50.0(16)	21.9( 7)	6.2(2)	100.0(32)
	교수	20.9(9)	53.5(23)	25.6(11)	-	100.0(43)
	합계	5.7(33)	15.4(90)	46.8(273)	32.1(187)	100.0(583)

교직원(21.9%)과 교수(20.9%)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체로 많이 읽는 편이다'에 대답한 구성원도 역시 교수(53.5%)와 교직원(50.0%)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읽지 않는다'는 비율은 교수와 교직원보다 학생들의 경우가 훨씬 많다. '거의 읽지 않는다'에 응답한 구성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은 4학년(60.7%), 2학년(57.8%), 3학년(52.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혀 읽지 않는다'에 응답한 구성원은 1학년(67.6%), 2학년(34.1%), 3학년(29.6%), 4학년(20.5%)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의 읽지 않는다'와 '전혀 읽지 않는다'의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는 1학년(92.1%), 2학년(91.9%), 3학년(82.4%), 4학년(81.2%)의 순서로 저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열독 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읽지 않는 이유

제대신문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대신문을 '거의 또는 전혀 읽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460명, 전체의 78.9%)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표 4>에서 살펴보았다.

<표 4> 신문을 읽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	%	누적 %
읽을 시간이 없어서	40	9.0	9.0
신문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44	9.9	18.8
구성과 내용이 좋지 않아서	41	9.2	28.0
신문을 얻을 수가 없어서	192	43.0	71.1
신문을 읽기 싫어서	72	16.1	87.2
기타	57	12.8	100.0
합계	446	100.0	

신문을 읽지 않는 이유는 '신문을 얻을 수가 없어서' 43.0%, '신문을 읽기 싫어서' 16.1%, '기타' 12.8%, '신문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9.9%, '구성과 내용이 좋지 않아서' 9.2% 그리고 '읽을 시간이 없어서' 9.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제대신문이 있는지 몰랐다', '읽고 싶은 생각이 없다', '흥미가 없다', '수준이 낮다', '지루하다' 등의 다양한 서술응답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신문을 얻을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신문을 만든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관심을 얻지 못한다면 신문의 효용성은 떨어질 것이다. '신문을 얻을 수 없다'는 응답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문의 배부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 3) 열독방법

<표 5> 신문의 열독방법

구분	빈도	%	누적 %
모든 기사를 자세히 읽는 편이다.	21	17.7	17.7
주로 기사제목만 읽는 편이다.	17	14.3	32.0
관심 있는 기사만 골라 읽는 편이다.	72	60.5	92.5
대충 보고 마는 편이다.	8	6.7	99.2
기타	1	0.8	100.0
합계	119	100.0	

다음은 신문을 '나올 때마다 읽는다', '대체로 많이 읽는 편이다'고 답한 응답자(123명, 전체의 21.1%)만을 대상으로 신문을 어떻게 읽는지를 알아보았다. '관심 있

는 기사만 골라 읽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0.5%로 가장 많다. '주로 기사 제목만 읽는 편이다'의 경우도 14.3%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독자의 관심과 욕구를 파악하여 기사 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모든 기사를 자세히 읽는 편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17.7%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대충 보고 마는 편이다'라는 응답도 6.7%로 나타나고 있다.

#### 4) 비교적 많이 읽는 지면 순서

대학구성원들 중 많은 수가 관심 있는 기사만을 읽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지면에 관심을 갖고 열독하는지를 확인하여 보는 것은 필요하다. 응답자에게 지면 중에서 비교적 많이 읽는 지면을 순위에 따라 '첫번째로 가장 많이 읽는 지면', '두 번째로 많이 읽는 지면', '세 번째로 많이 읽는 지면'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6〉 관심을 갖고 읽는 신문 지면(중요 순서별)

(단위: %, 명, 점수)

구분	첫 번째 많이 읽는 지면	두 번째로 많이 읽는 지면	세 번째로 많이 읽는 지면	평균I	평균II
1면 보도면	54.7(64)	13.0(15)	10.4(12)	2.57	2.00
2면 보도면	13.7(16)	33.9(39)	5.2(6)	2.16	1.13
3면 여론면	12.0(14)	13.9(16)	19.1(22)	1.85	0.82
4면 학술면	3.4(4)	7.9(9)	14.8(17)	1.57	0.40
5면 문화면	1.7(2)	10.4(12)	13.9(16)	1.53	0.39
6면 시사면	6.0(7)	8.7(10)	10.4(12)	1.83	0.45
7면 지역사회면	0.8(1)	2.6(3)	9.6(11)	1.33	0.17
8면 기획, 특집면	7.7(9)	9.6(11)	16.6(19)	1.74	0.58
합계	100.0(117)	100.0(115)	100.0(115)		

주. 〈평균I〉은 중요 순서 '첫 번째'에는 3점, '두 번째'에는 2점, '세 번째'에는 1점을 주어 해당 문항을 선택한 응답자들을 기초로 얻은 평균점수이다. 반면에 〈평균II〉는 해당 문항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들까지도 포함하여 얻은 값을 이 질문의 첫 번째 응답란에 답한 사람 수(117명)로 나누어 얻은 것인데, 해당 문항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표 30〉의 평균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표 6〉을 보면, 첫 번째 응답범주에는 1면 보도면을, 두 번째 범주에서는 2면 보도면을, 그리고 세 번째 범주에서는 3면 여론면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 해당 문항별로

응답자들이 매긴 순서들을 평균으로 나타내보면(〈평균I〉 참조) 1, 2면의 보도면이 2점 이상을 보이고 있다. 3면 여론면, 6면 시사면, 8면 기획 혹은 특집면도 1.74점 이상으로 중간점을 넘고 있다. 그런데 이 평균은 응답의 강도(집중도)만을 보여줄 뿐 보편적, 일반적 지지의 정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보편적, 일반적 지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 질문에 답했던 전체 응답자를 기초로 평균을 산출해보면(〈평균II〉 참조), 6면과 8면의 점수가 뒤바뀌고 있지만 1, 2면, 여론면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보도와 여론을 통해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의 사정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기능·역할 수행 평가

대학신문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대학구성원들이 느끼는 만족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만족도는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소 '제대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응답자에게도 조사 직전에 발행된 2회분의 신문을 보여주고 열독한 후 평가하도록 하였다.

### 1) 대학 내 강의 및 연구활동 보도

〈표 7〉은 교육적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주요 항목으로 대학 내 강의 및 연구활동 보도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만족도의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결과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대체로 만족'(27.1%), '대체로 불만족'(13.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내 강의 및 연구활동 보도 기능은 대학구성원들로부터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보다는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표 7〉 대학 내 강의 및 연구활동 보도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2	2.1	2.1
대체로 만족	153	27.1	29.2
보통	318	56.2	85.4
대체로 불만족	76	13.5	98.9
매우 불만족	6	1.1	100.0
합계	565	100.0	

## 2) 대학 내 학생활동 보도

〈표 8〉은 대학 내 학생활동의 보도에 대한 만족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통'의 경우가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의 순인데, '만족스럽다'는 응답(36.8%)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16.2%)보다 2배를 넘고 있다.

〈표 8〉 대학 내 학생활동 보도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4	2.5	2.5
대체로 만족	194	34.3	36.8
보통	266	47.0	83.8
대체로 불만족	81	14.3	98.1
매우 불만족	11	1.9	100.0
합계	566	100.0	

## 3) 대학의 행정사항 보도

대학의 행정사항에 대한 보도 항목에서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52.9%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이 '대체로 불만족'보다 약간 많은데, '매우 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한데 묶었을 때도 '불만족'(21.1%)보다는 '만족'(26.0%) 응답이 다소 많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대학 행정사항 보도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3	2.3	2.3
대체로 만족	133	23.7	26.0
보통	297	52.9	78.9
대체로 불만족	101	18.1	97.0
매우 불만족	17	3.0	100.0
합계	561	100.0	

## 4) 대학문화의 정체성 형성

대학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상황이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제대신문의 역할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경우

가 가장 많은 51.6%를 기록하고 있다. '불만족'은 28.1%로 '만족' 20.3%보다 다소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0〉 대학문화의 정체성 형성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7	1.3	1.3
대체로 만족	106	19.0	20.3
보통	289	51.6	71.9
대체로 불만족	137	24.5	96.4
매우 불만족	20	3.6	100.0
합계	559	100.0	

### 5) 대학에 대한 자긍심 고취

〈표 11〉에 정리된 대학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항목의 경우를 보면 앞의 두 네트워크 역할 수행과 비슷하게 다른 기능·역할 항목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46.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불만족'이라는 평가가 '대체로 만족'이라는 평가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고, '매우 불만족'과 '매우 만족'의 비교도 비슷하게 나타남이 엿보인다.

〈표 11〉 대학에 대한 자긍심 고취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3	2.3	2.3
대체로 만족	86	15.4	17.7
보통	260	46.4	64.1
대체로 불만족	170	30.4	94.5
매우 불만족	31	5.5	100.0
합계	560	100.0	

### 6) 대학과 동창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

대학과 동창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앞선 항목들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41.2%)가 가장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대체로 만족'(15.4%)이라는 응답보다 '대체로 불만족'(36.0%)이라고 한 경우가 무려 두 배를 더 넘어서고 있다. 또한 '매우 만족'(2.3%)

보다 '매우 불만족'(5.1%)이라는 응답이 두 배를 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만족'(41.1%) 응답이 '만족'(17.7%)의 두 배를 훨씬 넘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동창회간의 연결하는 역할 수행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2〉 대학과 동창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3	2.3	2.3
대체로 만족	87	15.4	17.7
보통	232	41.2	58.9
대체로 불만족	203	36.0	94.9
매우 불만족	29	5.1	100.0
합계	564	100.0	

### 7)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은 다른 기능항목들과 비교할 때 대체로 낮은 만족도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45.1%가 '보통' 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5.8%로 '만족'이라고 답변한 경우 19.1%보다 훨씬 많다.

〈표 13〉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8	1.4	1.4
대체로 만족	100	17.7	19.1
보통	255	45.1	64.2
대체로 불만족	175	31.0	95.2
매우 불만족	27	4.8	100.0
합계	565	100.0	

### 8)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학내 사안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학내 사안 보도에 대해서도 '보통'의 경우가 52.9%로 역시 가장 많다(〈표 14〉 참조). 다음으로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불만족'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 '매우 만족'의 경우는 0.7%에 그치고 있다. 앞의 항목들에 비하면 이 항목에서 나타난 '불만족'의 응답률이 '만족'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4〉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학내 사안 보도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4	0.7	0.7
대체로 만족	117	20.7	21.4
보통	299	52.9	74.3
대체로 불만족	127	22.5	96.8
매우 불만족	18	3.2	100.0
합계	565	100.0	

### 9)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항목에도 '보통'에 응답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49.6%), '만족'(21.8%)보다는 '불만족'(28.6%)의 응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매우 만족'의 경우는 2.2%에 그친 반면에 '매우 불만족'은 4.5%로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표 15〉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2	2.2	2.2
대체로 만족	109	19.6	21.8
보통	276	49.6	71.4
대체로 불만족	134	24.1	95.5
매우 불만족	25	4.5	100.0
합계	556	100.0	

### 10) 기사를 통한 대학의 역량과 위상 홍보

〈표 16〉 기사를 통한 대학의 역량과 위상 홍보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9	1.6	1.6
대체로 만족	116	20.6	22.2
보통	285	50.8	73.0
대체로 불만족	135	24.0	97.0
매우 불만족	17	3.0	100.0
합계	562	100.0	

대학역량과 위상 홍보 역할 수행에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 다음은 '대체로 불만족' 24.0%, '대체로 만족' 20.6%의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불만족'의 응답이 '매우 만족'의 응답보다 1.4% 높게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22.2%인데 비해 '불만족'의 경우는 27.0%에 이르고 있다.

### 11) 학술적 지식 전달

제대신문이 수행하는 학술적 지식 전달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라는 평가가 5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체로 불만족'(22.7%), '대체로 만족'(20.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불만족'(4.3%)은 '매우 만족'(2.0)에 2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비교하면 '불만족'의 경우가 27.0%로 '만족' 22.2%보다 다소 많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학술적 지식 전달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1	2.0	2.0
대체로 만족	114	20.2	22.2
보통	287	50.8	73.0
대체로 불만족	128	22.7	95.7
매우 불만족	24	4.3	100.0
합계	564	100.0	

### 12)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표 18〉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0	1.8	1.8
대체로 만족	102	18.1	19.9
보통	273	48.6	68.5
대체로 불만족	154	27.4	95.9
매우 불만족	23	4.1	100.0
합계	562	100.0	

〈표 18〉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다. 응답결과는 '보통'(48.6%),

'대체로 불만족'(27.4%), '대체로 만족'(18.1%), '매우 불만족'(4.1%), '매우 만족'(1.8%)의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통'을 제외하면 '불만족'에 대한 응답이 '만족'보다 높게 드러나고 있다.

### 13) 대학신문으로서의 총체적 기능 수행

〈표 19〉는 제대신문의 총체적 기능 수행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55.6%)가 각 항목으로 물어 보았을 때보다 훨씬 높게 보여주고 있다. 또 많은 기능항목에서 '불만족'에 대한 응답이 '만족'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총체적 기능 수행과 관련한 응답에서는 '만족'의 경우(22.9%)가 오히려 '불만족'의 경우(21.6%)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1.3%의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표 19〉 대학신문으로서의 총체적 기능 수행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5	2.7	2.7
대체로 만족	114	20.2	22.9
보통	314	55.5	78.4
대체로 불만족	100	17.7	96.1
매우 불만족	22	3.9	100.0
합계	565	100.0	

앞서 본 제대신문이 수행하는 기능·역할들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약 50%를 전후로 다소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만족'과 '만족'에서는 엇갈린 응답을 하고 있다. '대학의 행정사항 보도', '대학 내 학생활동의 보도', '대학 내 강의 및 연구활동 보도'등에 있어서는 '보통' 다음으로 '만족'에 더 많이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기사를 통한 대학 역량과 위상 홍보',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학내사안',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등의 항목에는 '만족'에 응답한 경우보다 '불만족'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 이들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평균으로 나타내보면 항목들간의 점수 서열화가 가능하게 된다. 〈표 20〉은 항목별 만족도의 평균점수를 산출한 내용이다. 평균점수가 3.0 이상 되는 것을 보면 '대학 내 학생활동 보도', '대학

내 강의 및 연구활동 보도', '대학의 행정사항 보도' 그리고 '대학신문으로서의 총체적 기능 수행' 등의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학내 활동 전반에 대한 보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기능·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대학에 대한 자긍심 고취'나 '대학과 동창회,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은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나머지 항목들과 더불어 모두 중간점인 2.5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100점 환산 평균 점수를 계산하면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평균점 2.5점은 100점 환산 시 50점이다. 따라서 2.5점 이상의 평균 점수인 경우는 100점 환산 평균점수 50점을 넘어서게 된다.

〈표 20〉 대학신문이 수행하는 기능별 만족도 평균 점수

항 목	평균 점수	100점 환산 평균점수
대학 내 강의 및 연구활동 보도	3.12	62.4
대학 내 학생활동 보도	3.21	62.2
대학의 행정사항 보도	3.04	60.8
대학문화의 정체성 형성	2.89	57.8
대학에 대한 자긍심 고취	2.79	55.8
대학과 동창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	2.82	56.4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	2.80	56.0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학내 사안	2.94	58.8
대학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2.91	58.2
기사를 통한 대학의 역량과 위상 홍보	2.94	58.8
학술적 지식 전달	2.93	58.6
학내구성원의 의견수렴	2.86	57.2
대학신문으로서의 총체적 기능 수행	3.00	60.0

주: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각각 5, 4, 3, 2, 1점을 해당 사례 수에 곱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기능·역할 항목들이 100점 환산 평균점수 50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제대신문의 기능 수행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세 항목, 즉 '대학 내 강의 및 연구활동보도', '대학 내 학생활동보도' 그리고 '대학의 행정사항보도'는 100점 환산 평균점수 60점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제대신문이 수행하는 기능·역할 중 이 세 가지는 대학구성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반대로 '대학에 대한 자긍심 고취', '대학과 동창회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역할' 등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 3. 편집과 구성 평가

본 장에서는 제대신문의 편집과 구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편집과 구성, 기사, 사진, 맞춤법과 오·탈자의 문제 등에 대한 분석들이 다루어진다.

#### 1) 편집과 구성의 적절성

〈표 21〉은 편집과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려주고 있다. 대학구성원들은 제대신문의 편성과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55.8%)을 가장 높게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32.0%)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불만족'에 답한 경우는 10.4%에 불과하다. 거의 세 배 이상으로 '만족'에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구성원들은 제대신문의 편성과 구성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보통 이상으로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21〉 편집 및 구성의 적절성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0	1.8	1.8
대체로 만족	182	32.0	33.8
보통	318	55.8	89.6
대체로 불만족	49	8.6	98.2
매우 불만족	10	1.8	100.0
합계	569	100.0	

#### 2) 기사

##### (1) 기사의 시기 적절성

먼저 〈표 22〉는 기사의 시기적절성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47.4%), '대체로 만족'(33.3%), '대체로 불만족'(14.9%)의 순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에 대한 응답(34.9%)이 '불만족'에 대한 응답(17.7%)의 두 배에 가까워져 있다. 신문의 기사가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신뢰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학구성원들은 제대신문의 기사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 기사의 시기적절성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9	1.6	1.6
대체로 만족	190	33.3	34.9
보통	270	47.4	82.3
대체로 불만족	85	14.9	97.2
매우 불만	16	2.8	100.0
합계	570	100.0	

(2) 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제대신문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만족도는 〈표 23〉에서 보듯이 '보통'이라는 평가가 58.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대체로 만족' 25.0%, '대체로 불만족' 13.6%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있어 '불만족' 보다는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표 23〉 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구분	빈도	%	%
매우 만족	9	1.6	1.6
대체로 만족	141	25.0	26.5
보통	330	58.4	85.0
대체로 불만족	77	13.6	98.6
매우 불만족	8	1.4	100.0
합계	565	100.0	

3) 사진

신문에서 사용되는 사진은 기사의 시각적 보조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진 그 자체만으로도 기사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사진은 역사적 사실과 현장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만큼 신문에서 기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1) 기사와 사진의 관련성

〈표 24〉는 기사와 사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 사진이 기사의 내용에 부합되게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관련성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수

준이라고 응답하는 경우(47.6%)가 가장 많다. 그러나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9.6%로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12.8%에 비해 세 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매우 만족'에 응답한 경우가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의 네 배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제대신문은 기사와 사진의 관련성에 대해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기사와 사진의 관련성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23	4.1	4.1
대체로 만족	200	35.5	39.6
보통	268	47.6	87.2
대체로 불만족	64	11.4	98.6
매우 불만족	8	1.4	100.0
합계	563	100.0	

### (2) 사진의 질

사진의 질(선명도)에 대해서 대학구성원들은 45.3%가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족'과 '불만족'의 응답은 각각 27% 정도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의 항목에 비하면 '만족'의 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질 자체가 선명치 못한 것이 사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25〉 사진의 질(선명도)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21	3.7	3.7
대체로 만족	136	24.0	27.7
보통	257	45.3	73.0
대체로 불만족	126	22.2	95.2
매우 불만족	27	4.8	100.0
합계	567	100.0	

### (3) 캡션(사진의 설명 부분)의 적절성

캡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통' 수준(51.3%)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만족'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29.5%로 '불만족' 19.2% 보다 10% 가량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캡션의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6〉 캡션(사진의 설명부분)의 적절성

구 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17	3.0	3.0
대체로 만족	150	26.5	29.5
보통	291	51.3	80.8
대체로 불만족	92	16.2	97.0
매우 불만족	17	3.0	100.0
합 계	567	100.0	

#### 4) 맞춤법과 오·탈자의 문제

##### (1) 맞춤법의 표기

맞춤법 표기는 기사작성 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이러한 맞춤법 표기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제대신문은 높은 신뢰도를 얻는데 실패하게 된다.

맞춤법 표기와 관련해서 '보통' 정도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다. 반면에 '불만족'이란 응답은 8.1%에 그치고 있다. 응답의 결과로 본다면, '만족'에 응답하는 경우가 48.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뢰도의 정도에 맞춤법에 의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27〉 맞춤법의 표기

구 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30	5.3	5.3
대체로 만족	244	42.9	48.2
보통	249	43.7	91.9
대체로 불만족	35	6.2	98.1
매우 불만족	11	1.9	100.0
합 계	569	100.0	

##### (2) 오자와 탈자의 문제

오자와 탈자의 문제는 사소한 것일 수 있으나 신문과 기사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자와 탈자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보통' (49.2%)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만족'에 대한 평가도 40.4%에 이르고 있다. '불만족'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도 10.4%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약 10% 이상이 오자와 탈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오타

자의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8〉 오자와 탈자 문제

구분	빈도	%	누적 %
매우 만족	30	5.3	5.3
대체로 만족	200	35.1	40.4
보통	280	49.2	89.6
대체로 불만족	50	8.8	98.4
매우 불만족	9	1.6	100.0
합계	569	100.0	

이상에서 본 제대신문의 편집과 구성에 관한 만족도를 요약하면, 기능·역할 수행 만족도에서처럼 '보통' 정도로 보는 응답이 5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보다 '만족'이라는 응답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기능·역할 수행에서의 만족도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만족'의 응답이 '불만족'의 응답보다 세 배 이상을 보여주는 항목도 여러 개 있다. '편성과 구성의 적절성', '1.2면의 기사의 수', '기사와 사진의 관련성', '맞춤법의 표기', '오자와 탈자가 없다'에서 세 배 이상으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특히 맞춤법의 표기에는 여섯 배의 차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표 29〉 신문의 편집과 구성에 관한 만족도 평균 점수

항목	평균 점수	100점 환산 평균점수
편성 및 구성의 적절성	3.23	64.6
기사의 시기 적절성	3.16	63.2
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3.12	62.4
기사와 사진의 관련성	3.29	65.8
사진의 질(선명도)	2.99	59.8
캡션(사진의 설명부분)의 적절성	3.10	62.0
맞춤법의 표기	3.43	68.6
오자와 탈자가 없다	3.34	66.8

주: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각각 5, 4, 3, 2, 1점을 해당 사례 수에 곱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평균점수로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이 중간점인 2.5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 항목 즉 사진의 질(2.99)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점수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

다. 이는 제대신문의 편집과 구성에 대해서 대학구성원들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로 계산한다면 이런 현상을 더욱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기능 수행의 면에서 100점 환산 평균점수에 근거하여 60점을 넘은 항목이 네 개에 한정되었던 반면에, 편집과 구성에 대해서는 한 항목(59.8)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60점을 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써 대학구성원들은 제대신문의 기능·역할 수행보다 편집과 구성에 보다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쉽게 알게 한다.

#### 4. 불필요하거나 중점을 두어야 할 기사 지면

대학신문의 기능과 편집방향은 대학 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기능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삭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앞으로 더 보장되어야 할 기능·역할들

〈표 30〉 앞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능(중요 순서별)

(단위: %, 명, 점수)

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평균I	평균II
학내 소식전달(강의활동, 학생 활동, 연구활동, 행정사항 등)	42.2(243)	12.0(68)	12.2(69)	2.46	1.62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통합	19.8(114)	21.9(124)	12.2(69)	2.15	1.14
학술적 지식의 전달	9.6 (55)	12.4(70)	11.7(66)	1.94	0.64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15.1(87)	26.5(150)	14.5(82)	2.02	1.12
대학의 역량과 위상에 대한 홍보	3.1(18)	8.9(50)	7.8(44)	1.77	0.34
지역사회, 재학생간의 네트워크 형성	5.0(29)	8.9(50)	18.3(103)	1.59	0.50
지역사회의 정보전달 및 비판	3.6(21)	8.9(50)	21.5(121)	1.48	0.49
기타	1.6(9)	0.5(3)	1.8(10)	1.96	0.08
합 계	100.0(576)	100.0(565)	100.0(564)		

〈표 30〉은 제대신문에 있어 앞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능·역할을 중요 순서별로 작성된 것이다. “제대신문은 다음의 보기 중에서 현재보다 어떤 것이 앞으로 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세 가지만 골라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첫 번째 응답 범주에서는 ‘학내 소식전달’을, 두 번째에

서는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세 번째에서는 '지역사회의 정보전달 및 비판'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 순서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해보았다. <평균I>이 보여주듯이 '학내 소식전달',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통합',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의 순서로 각기 2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기능·역할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되어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평균II>에서도 비슷하다. 이 때 평균점수가 낮다고 해서 보강이 불필요하다고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평균점수의 차이는 다만 앞으로 보장되어야 할 순서를 상대적으로 지시해주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 2) 중점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지면

한편, 응답자들이 중점적으로 보장,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면도 살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19.0%)을 제외하면, '3면 여론면'(16.0%), '1면 보도면'(14.3%), '4면 학술면'(11.6%), '6면 시사면'(9.3%), '8면 기획 혹은 특집면'(9.2%) 등의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학신문이 대학 내 제활동에 대한 보도를 충실히 하고,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함으로써 통합적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일치한다. 또한 학술적, 시사적 지식에 대한 관심도 지면 보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일 것이다.

〈표 31〉 중점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지면

구분	빈도	%	누적 %
1면 보도면	81	14.4	14.4
2면 보도면	32	5.6	20.0
3면 여론면	91	16.0	36.0
4면 학술면	66	11.6	47.6
5면 문화면	44	7.8	55.4
6면 시사면	53	9.3	64.7
7면 지역사회면	32	5.6	70.3
8면 기획 및 특집면	52	9.2	79.5
그런 지면이 없다	8	1.4	80.9
모르겠다	108	19.1	100.0
합계	567	100.0	

### 3) 추가 편성해야 할 지면

〈표 32〉는 변화하는 대학환경에 걸맞게 새로 추가 편성해야 할 지면에 대한 질문 결과이다. 이 질문의 응답으로 '모르겠다'가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없다'에 26.0%가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모르겠다'에 응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지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지 않고는 추가 편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표 32〉 새롭게 추가하여 편성해야 할 지면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	누적 %
있다	96	16.9	16.9
없다	148	26.0	42.9
모르겠다	325	57.1	100.0
합계	569	100.0	

새롭게 추가 편성할 지면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9%에 불과하다. 이 경우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면의 내용은 다양하게 열거되고 있다. 가장 많게 거론되는 것은 '국제면' 신설(18명 응답)인데, 이를 통해 국제사회, 학술교류, 국제지식 및 정보 전달, 유학정보 등에 관심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뒤로 '주제탐구면'(11명 응답), '종합정보면'(10명 응답), '취업정보면'(7명 응답), '정치경제면'(6명 응답), '스포츠면'(3명 응답) 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여론조사면', '여성면', '학사행정소개면', '학생광고면', '동문소식면' 등과 같은 지면이 응답수는 많지 않지만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제대신문의 지면 중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면이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현재의 지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53.8%)가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없다'는 의견이 38.8%로 나타나고 있으며, '있다'는 응답은 6.4%에 그치고 있다.

〈표 33〉 삭제해야 할 지면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	%	누적 %
있다	36	6.4	6.4
없다	223	39.8	46.2
모르겠다	302	53.8	100.0
합계	561	100.0	

한편, 제대신문의 지면수에 대한 의견도 살펴본다. 제대신문은 통상적으로 매주 8면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8면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64.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가 21.8%를 보이고 있다. 12면으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11.5%에 이르고 있다.

〈표 34〉 8면 발행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	누적 %
12면으로 늘려야 한다.	65	11.5	11.5
지금과 같이 8면이 적당하다.	367	64.8	76.3
모르겠다.	123	21.8	98.1
기타	11	1.9	100.0
합계	566	100.0	

요컨대, 제대신문 평가조사 결과 열독 실태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기능·역할 수행, 편집과 구성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강되어야 할 기능·역할로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통합', '학내 소식전달',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지역사회의 정보전달 및 비판' 등을 꼽고 있고, 신설을 원하는 지면으로 '국제면'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면수는 현재처럼 8면이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V. 결론 및 함의

분석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첫째로 대학신문은 대학구성원들로부터 대체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대학신문의 열독 실태는 제작자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구성원들은 자신에 관심 있는 기사만을 선별적으로 골라 읽고 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학신문이 대학구성원들에게 기다려지는 신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대학신문이 자기혁신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지 않으면 외면당하는 신문, 안 만들어도 될 신문, 열람실 가리개 정도로 쓰이는 신문으로 가치절하될 현실적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만큼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신문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신문이 현실적인 자기혁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할 것이다.

둘째, 열독 수준을 높이는 것은 배부체계의 개선과 같은 접근성 제고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변화하는 대학 내외의 환경에 적절하게 조응하여 대학신문의 기능·역할을 재정 의하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본질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대학신문이 대학내 언론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신문은 대학이 설정한 교육이념이나 교육목표의 바탕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학신문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교육목적 을 성취하는 데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대학신문이 대학내 거의 유일한 언론매체인 점에 비추어 대학내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대학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대학을 위한 PR기능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동창회와의 연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동창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세계화시대의 조류를 읽어내어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데도 대학신문은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셋째, 대학신문의 편집방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시사한다. 기능·역할의 강화와 함께 편집구성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 독자들은 대학신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태도를 견지하며 다양하고 균형된 기사를 보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편집진은 어느 특정집단의 주장이나 이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관점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신문을 제작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현재에도 편집구성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학구성원들에게 여전히 식상한 지면으로 보여지고 있다면 과감한 편집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단순한 편집상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취재조직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지면의 개편과 추가 편성, 지면의 심미성 추구, 제호의 변경 등도 편집구성의 변화에 불가피한 것들로 평가된다. 이런 편집구성의 변화들과 더불어 역시 대학신문은 일간지와는 다른 아카데미즘적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대학언론의 정체성을 지키고 기성 언론과의 차별화를 이루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아카데미즘적 진실성이 살아 있을 때 기성세대와 일반사회에 대한 비판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섯째, 오피니언란 활성화를 통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독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여 신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매체인 신문은 그 비인간적인 특성으로 하여 독자들이 기자나 편집자에 대해 정서적 공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통해 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문제점을 깨닫고 독자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신문은 독자들과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신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우수한 학생 기사를 선발하고, 그들이 장차 언론사에 취업하는 길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체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sup>2)</sup>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학생 기자의 절대 부족 현상이다.<sup>3)</sup> 신문제작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적절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행 횟수나 지면 줄이기, 나아가 주간에서 격주간으로 발행 형식을 변경해야 할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신문 내용의 질적 향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생기자들은 졸업 후 언론계에 대한 진출을 염두에 두고 대학신문사에 입사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적은 수의 학생 기자로 8면 내지 12면을, 그것도 자체 전산 편집으로 발간하는 학생 기자들의 업무량은 엄청나기 때문에 학과 성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이 봉사만으로 대학생활을 보내야 하는 고충이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 1학년생에서 기사를 선발하는 관행을 벗어나 2, 3학년이나 대학원생 기자도 함께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언론 기능의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신문사에 전임기자<sup>4)</sup>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학 안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지 않고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미래 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공정한 논평이나 심층 보도를 다루기 위한 전임기자의 확보는 너무나 당연하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조사결과는 보다 나은 신문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선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을 때에 제대신문은 '읽히는 신문'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며 '읽히는 신문'만이 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2) 2003년부터 대학신문사 기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학 중 영어강좌 개설과 지역언론사 연수 등 기자자질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겨울방학에는 한라일보사에서, 2004년 여름방학에는 제민일보사에서 현장실무 연수를 실시했다. 현재 2005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생기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관광신문 편집국에서 신문편집과 제작에 관련한 연수를 갖고 있다. 향후 기자자질 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교육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기자의 안목을 높이는 해외연수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중장기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신문은 가장 고급의 독자들을 상대하고 있음에도, 1~3학년 학생들이 신문제작을 하고 있다. 신문의 지면경쟁력은 신문을 만드는 인력의 우수성에 달려 있다. 신문제작 및 관리 요원의 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최선의 투자와 조직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 4) 전임기자는 학교나 신문사에서 일정한 고정 보수를 지급하는 기사를 말한다. 이 제도는 서울대신문과 방송통신대대학신문에서 실시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권혁남, 1991. "수용자 개념의 변화와 효과이론", 「방송연구」, 여름호
- 김영호, 강준만, 1995. 「현대사회와 지역언론」, 나남출판
- 김진영, 황석규, 2003. 「제주대학교 대학신문 평가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
- 김진영, 2004. "읽히는 대학신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제대신문의 사례", 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동계세미나 자료집
- 박성희, 2004. "인터넷 이용동기와 이용행태 간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48(4)
- 윤영무, 1988.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대학신문의 역할", 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세미나
- 윤희중, 1993. "한국의 대학과 대학신문", 「대학교육」
- 윤희중, 1985. "한국대학신문의 비교분석적 연구-1970년으로부터 1984년까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7
- 이범수, 1995. "대학언론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의 대학언론」, 한국언론연구원
- 정용복, 2003. "제대신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제대신문 700호 특집호
- 차배근, 1993. "새시대 대학신문의 위상과 역할", 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세미나 자료
- 최창섭, 1990. "대학신문의 과제와 전망", 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1989년도 동계세미나 발표 자료집
- 한국언론연구원, 1995. 「한국의 대학언론」
- Rosengren, K. E. 1974. "Use and Gratifications", Blumler, J. G. and E. Katz (eds.). *The Use of Mass communications: Current Perspectives on Gratifications, Research*. Sage
- Pradeep, K., L. Korgaonkar and K. Wolin, 1999. "A Multivariate Analysis of Web Usage",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Mar/Apr
- McQuail, D., 1987.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2nd ed.), Sage
- Severin, W. J. and Tankard, J. W., 1988.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thods and Uses in Mass Media*. 김흥규 외 (공역), 1999.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개론」, 나남